

북구, 美 박람회서 100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광융합무역촉진단 업무협약 수출상담서 2개기업과 MOU

광주 북구는 지역 기업들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광통신박람회(OFC) 등에 참가해 1000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24~30일 인공지능(AI)과 광융합산업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11개 지역 유

망 기업이 참여하는 '광융합무역촉진단'을 미국 샌디에이고 및 로스앤젤레스에 보냈다.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참여 기업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촉진단은 세계한인무역협회 LA 지회와 지역기업의 미주 시장진출 지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OFC가 열리는 샌디에이고에서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촉진단 참여 기업 제품을 홍보해 325만 달러 규모의 현장 실계약 체결을 원했다.

675만달러 상당의 약정 계약 체결도 성사시켰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발굴한 AI 기반 에너지플랫폼 현지 기업과 촉진단에 참여한 2개 기업이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북구는 당초 목표한 150만달러 대비 850만달러를 초과한 1000만달러 규모 실·약정 계약을 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촉진단 파견을 통해 관계를 맺은 현지 바이어와 교류를 이어가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가 수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4차산업 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민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북구의 해외 판로지원 정책이 지역 기업의 수출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구의 광융합무역촉진단은 지난해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서 934만달러 수출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바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관광두레 사업' 발굴·육성 남구-한국관광공사

광주 남구는 한국관광공사와 브랜드 관광상품 발굴·육성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달 28일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발굴·육성을 위한 관광두레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병내 남구청장과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지호 전문위원, 관광두레 사업 지역 활동가 최영우 PD 등이 참석했다.

관광두레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관광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지역주민 주도하에 만든 관광사업체가 자립 및 성장을 이루도록 최장 5년간 단계별 맞춤형 시범사업 비용을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골자다.

남구와 한국관광공사는 주민들이 지역 특색을 갖춘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아 기자**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우수 북구, 특교세 1억원 확보

광주 북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에서 10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적극재정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상·하반기 2회 진행하는 평가다.

북구는 지난해 예산현액 1조 1723억원 중 91.92%에 해당하는 1조 776억원을 지출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부문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북구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보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재정 집행 목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해 지역주민과 민생경제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공중위생관리사업 평가 '최우수' 서구, 5개 자치구 중 1위

광주 서구가 광주시 주관 공중위생관리사업 평가에서 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업소 사업 효율성 제고와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관리사업 활성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공중위생 특수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지표 23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서구는 지난해 공중위생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목욕장업 육주소 및 먹는 물 수질검사, 우수·중저가 숙박업소 관리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관리를 비롯해 △공중위생사업 홍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 봉사 △여성·가족 안심 숙박서비스업소 지정 등 특수사업을 수립해 추진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용 서구 보건위생과장은 "공중위생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정책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청렴 공직자상' 수상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 광주총연합 청렴 공직자상을 받았다.

31일 서구에 따르면 (사)부패방지국민운동 광주총연합은 지난달 28일 제이아트웨딩홀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 청장은 인허가, 재·세정 분야 등 민원 발생이 많은 분야에 대해 구청장 직통 문자폰인 '바로문자하랑께', 현장 중심의 '내걸에 구청장실' 등 적극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행정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 청장은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투명한 광주, 청렴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광주 광산구는 매주 금요일 1000원에 돌봄 이웃에 푸짐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송정1동 '천원의 사랑 행복한 밥상'에 이어 첨단1동에서도 돌봄 이웃의 식사를 지원하는 '선한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 '밥상 돌봄' 확산... 따뜻한 복지 기부 물결

첨단1동 '선한식당' 운영 다음 밥상기부 참여 지목

광주 광산구는 매주 금요일 1000원에 돌봄 이웃에 푸짐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송정1동 '천원의 사랑 행복한 밥상'에 이어 첨단1동에서도 돌봄 이웃의 식사를 지원하는 '선한식당' 운영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산구 첨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8일 '달봉이회수산'을 첨단1

동 제1호 선한식당으로 지정했다.

첨단1동 지사협과 첨단지구 상인연합회가 협업체 추진하는 '선한식당'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 등 돌봄 이웃에 1000원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거둔 식사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돌봄 이웃에 식사를 제공한 식당이 다음 밥상 기부에 참여할 식당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월 2회 최대 30명 돌봄 이웃에 '선한식당'의 따뜻한 밥상을 제공할 예정으로 출

몰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등 대상자별로 선호할 식당 업종, 메뉴를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박순애 첨단1동 지사협 위원장은 "돌봄 이웃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차린 따뜻한 밥상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형국 첨단지구 상인연합회 회장은 "첨단1동에 밥상 기부 물결이 이어지도록 상인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동구 계림1동 '쪽방촌 1인 가구 마중 활동'

광주 동구계림1동은 마을 공유공간 개미갤러리에서 '쪽방촌 1인 가구 마(음을 잇는)중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쪽방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림1동은 오는 6월까지 쪽방촌 거주 1인 가구 80명과 함께 도기 공예를 시작으로 라탄·가족 공예, 전통 과자 만들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상반기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하반기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화원 계림1동장은 "이번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쪽방촌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광주 동구계림1동 '쪽방촌 1인 가구 마(음을 잇는)중 활동'. **광주 동구 제공**

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지방

자치단체 최초 '쪽방 등 비주택 거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쪽방상담소,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다. **송민섭 기자**

'희망 더하기 프로젝트' 추진 남구, 장애인·가족 대상

광주 남구는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의 행복 추구를 위해 희망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 더하기 프로젝트는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 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위한 사업으로 3가지 형태로 추진한다.

60세 이하 여성 장애인 20명이 참여하는 '뷰티에라 건강 교실'이 1일부터 주월건강생활센터 2층 보건 교육실에서 열린다.

성장기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체육 교실은 오는 11월말까지 매주 1차례씩 펼쳐진다.

중증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모임도 활성화한다.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북 카페에서는 지난 3월부터 자율형 멘토·멘티 자조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정성아 기자**